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귀찮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큰 행복

신윤식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빈 몸으로 시작된 삶
본래부터 내 것은 없는 것인데
잃었다는 생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으로 나와
푸른 하늘을 보며
이 순간까지 살아 온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마음은 왜 늘 허전할까

하고 싶은 일 많고
갖고 싶은 것 많지만
다 하고 모두 가진다 해도
그것도 잠시 동안의 기쁨이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흔적을
자신에게서 보면서
늪을 한탄하고 서러워만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부질없는 것이라

가졌다 할 것도 없고
이루었다 할 것도 없는 세상
영원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니
그 사랑에 붙들린 것이 큰 행복이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1.10

발행호수 제21권 45호

본 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남쪽은 유대 지역이었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로 가려면 사마리아인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둘러서 남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인을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의 습성을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한 마을에 들어가자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문둥병자 중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명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밝히고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문둥병자 아홉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간 마을은 유대인 문둥병자와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구별이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아홉 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함께 예수님께 외쳤다는 것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 는 의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차별한 것도 그러한 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의식에 의해 나보다 작은 자로 여겨지는 누군가를 차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둥병자의 세계에서 그러한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더러운 자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인이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문둥병자의 세계에서는 누구든 저주 받은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고 자연히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마을에서는 유대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차별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저주 받은 문둥병자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문둥병에 걸렸다면 저주 받은 자일뿐이고 격리되어야 했기에 세상의 기준 또한 통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차별하는 것이 없으니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차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고 구원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여기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하늘이 기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자는 지옥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문둥병자의 마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스스로를 저주 받은 자로 여기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여길 리가 만무합니다. 어찌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자신을 옳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높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았고 작은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을 봐도 스스로를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로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구원 받은 자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차별이 없으니 바리새인, 서기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구원 받은 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양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은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사람에게 높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잘 아실

주일오전설교
눅 17:11-19

돌아온 이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혹 '나는 그들처럼 나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매 설교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다' 라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에 대해 얘기할 때도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차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또한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만약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표라면 구원은 결국 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수준 높은 도덕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자의 마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저주 받은 죄인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불쌍한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를 믿음이 있는 신자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합니다. 눅 5장에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의 몸에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므로 병이 나았고 그 후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없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향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19절까지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누가 봐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 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향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까지의 행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깨끗함을 받은 후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열 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절)** 라고 말씀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을까요? 문둥병자라는 저주에서 벗어났으니 크게 기뻐하면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를 향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둥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결국 멸망을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 아홉이 병이 나았으면서도 구원 받지 못한 것이 단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홉 명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나오면 돌아와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동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시면서 돌아온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감사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기는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왔고 오히려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홉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병이 나은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문둥병이라는 고통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병이 나으면 예수님께 감사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 분에게 마음을 두게 된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로 마음이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깨끗하게 된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자부하지만 은총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증거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은총이 주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에 있음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총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총을 주신 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마음이 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물론 감사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은 만족으로 인한 반응일 뿐이지 은총을 베푸신 분의 자비와 사랑에 마음이 매임으로 인한 감사는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참된 신자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 뜻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한 것은 자신을 깨끗케 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마음이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돌아오게 하고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 나님에 대한 신학적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의미의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의 무소부재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1-4절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6-10절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아신다’ 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나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주일오우설교

시 139:1-10

나를
아시나이다

(143장 10.27일 설교)

없음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춰질 수 있는 죄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죄로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이 나올 수 없는 인간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세밀히 살피시면서 죄를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아시고 나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시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는 것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자는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이다”** 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에게 진심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도 아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셔야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기이하고 높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이 이처럼 기이하고 높기 신자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 즉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결국 신자는 어디에 있든 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인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강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신뢰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의 매를 맞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고, 옥에서도 찬송했음을 생각하면 믿음은 분명 우리를 사도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의 기쁨과 평강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이 없이 우리 뜻대로 산다면 필연코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은 항상 생명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저자는 단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태에 잉태하게 하고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나의 존재만을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자신을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기묘한 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도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고 합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음 받은 이유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존재에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6,17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태에 잉태되어 존재하고 세상에 사는 날까지의 모든 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겪을지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

획에 의해 주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안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염려에 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보다 생존에 더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일까요? 저자는 그것을 19-24절의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22절을 보면 저자는 갑자기 악인, 원수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악인을 반드시 죽이시는 것과 연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쳐질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고 높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악으로 존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3,24절)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길은 우리의 뜻이나 의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악에서 구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설교

렘 44:24-30

신앙과 종교

(98장 11.6일 설교)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간단히 답을 내린다면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고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종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이 잘 안 풀리는 현상을 일컬어서 ‘징크스’ 라고 하는데 이 징크스 역시 종교에 속한 것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이 서양의 대표적인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종교에 속하고, 우리나라 역시 4자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서 4자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지 않는 것도 종교이고 좋은 일이 있는 날에 그릇을 깨뜨리면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게 되는 것 역시 종교입니다. 이것을 보면 종교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길을 찾아 애굽으로 갔던 유대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땅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을 때는 잘 살았는데 분향하던 것을 폐지하자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옳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여왕 섬기는 것을 폐지하자 궁핍하게 되고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멸망 당하기 전에 우상 섬기는 것을 폐지한 적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망시켰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폐지한 것 역시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폐지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섬기지 않던 여전히 자기들 본성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찾고 하나님만을 부른다고 해서 우상과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부처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를 위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 방식과 자기를 위한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김으로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을 따라 나에게 유리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애굽 여인들의 심정이 이해 될 것이고 그 여인들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26,27절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절될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에 있을 때나 멸망 후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나 유다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들 방식을 가지고 신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자기들의 복에 초점을 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죄에 대해 추궁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도 선한 일을 하면 덮어줍니다. 신만 잘 섬기면 복을 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십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심판만이 당연할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신을 위한 종교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조차도 자신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재앙을 미리 방지하는 도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고난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고난을 예수님의 몫으로만 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신자에게 십자가는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

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가야 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역시 그 길에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전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착각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아님을 하늘 여왕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로 소수의 사람을 유다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과 함께 유다로 돌아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신자의 입장이 이들 소수의 유대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을 잘 섬기는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결코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인들은 복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하늘의 여왕을 선택했지만 참된 복은 심판에 해당하는 죄가 용서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복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복으로 감사하며 주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과 종교를 잘 분별하면서 성령 받은 신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십자가의 길로만 힘써 갈 수 있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73장
교 독 : 48(시106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300장
성 경 : 눅 17:11-19
말 씀 : 돌아온 이방인(8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89장
기 도 : 최두임 집사
찬 송 : 301장
성 경 : 시 141:1-10
말 씀 : 죄와 기도(14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12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9강)

■ 교회소식 ■

1.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모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습니다.
 - ① 주일오후 예배를 2:20분에서 2시로 변경
 - ② 주일오후 예배시 가족 찬양하기로 함 (순서는 1,2,3구역 순으로)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김종건 집사

이단 56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에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가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도 인간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서 악한 본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인간의 본성보다 힘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본성적 행위가 아닌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나의 믿음,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자에게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교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제거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으로 이해를 한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고난과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에 애통해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도 늘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눈을 뜬 것이 교하다.

그런데 지방교회가 말하는 교회는 영광스럽게 완성된 상태로서의 교회만을 말한다. '워치만 니가 본 교회의 이상과 실행'이라는 지방교회의 글에 보면 '워치만 니가 세운 상해 교회의 한 기도 집회에서 어느 자매님이 그 당시의 교회 상태를 반영하듯 '주여 가련한 상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워치만 니는 즉시 '오 주님, 당신의 교회는 늘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되받아 기도했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낮은 수준의 상태로 워치만 니처럼 영광의 상태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방교회의 글에서는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을 낮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용서 받은 신자가 또 다시 회개하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구원과 박육주의 논리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